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7년 10월

선교편지 제 103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 선교지에 정착하여 사역을 감당한지 어느덧 10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면, 이곳에 부임한 첫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 놓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낙심이 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더 큰 기쁨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족한 저희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한결같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때를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한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이롭지만,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도록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주의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놀라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10년차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주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감사함으로 떠올리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 갑니다. 아무쪼록 주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이르되 없었나이다 (눅 22:35)**

 4년전부터 시작한 장학사역을 통하여 마침내 지난 6월에 사역 1기에 해당하는 20명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약 6년전 고등학교 재학 당시, 주의 섭리 가운데 토요 한글학교로 첫 만남을 갖게 되었고, 제자 훈련반을 통하여 믿음을 갖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후원받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정말 말 그대로 '복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동안 수 많은 변곡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4년전, 이 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하며 그들의 부모님을 초대하여 저희가 진행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부모님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귀한 자식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찍어 두었던 다양한 사진을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부모님 앞에서 준비한 찬양도 부르고, 함께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자반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60개의 성경 구절을 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매주 성경을 암송 해 왔었고, 암송한 성경 구절을 잊지 않도록 누적하여 암송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년여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제자반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60개의 성경 구절을 주제별로 순서에 맞추어 암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60개의 성경 구절을 부모님 앞에서 영어로 쉬지 않고 암송 했더니, 부모님의 얼굴이 놀람과 기쁨으로 활짝 펴지는 큰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놀랍지만, 자신들의 자녀가 이렇게 영어를 잘 하는지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통하여 그 부모님들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을 소개할 때에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 얼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명랑하고, 성실한 학생인 '아이안 데이브'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부모들과는 달리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인 '아이안'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형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대학에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하나 보자!"라고 하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 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안'의 아버지를 또 다시 만난적은 없지만, 지난 4년여 동안 '아이안'은 교회에서 성실하고 믿음직한 청년으로 잘 성장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큰 짐을 덜어내고, '아이안'의 아버지와 약속을 지킨 듯 홀가분한 느낌입니다.


이번에 졸업한 20명의 학생들은 모두 다 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하여, 그동안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는데, 9월 중순 시험을 앞두고 모든 학생들이 주일이 아닌 평일에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일 정도로 믿음이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합격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1차 시험에 통과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인턴 교사가 되어 무보수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비록 대학은 졸업하였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짐작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장학 사역을 통하여 철없던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청년들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으로 확신 합니다.

이번에 20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새로운 21명의 새로운 장학생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졸업한 '사라'의 남동생을 누나의 뒤를 이어서 또 다시 후원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매우 연로한 중에 뒤 늦게 두 자녀를 낳았고, 지금은 병약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힘든 가운데, 대학까지 공부시키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할지 '사라'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떠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장학생들이 무사히 대학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후원해 주신 동역자들과, 또한 장학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청년들이 앞으로 펼쳐질 믿음의 경주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6:39)

 그동안 선교지에서 감당했던 여러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애뜻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선교지 정착 초기에 감당했던 '해변 마을'의 어린이 사역일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선교지에 부임을 했었지만, 막상 현지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할 때에, 공황히 여겨 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 드리는 어린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서, 참으로 소망이 있는 귀한 사역임을 깨닫고, 어린 아이들 만큼이나 저희들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2년여간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방파제를 세우는 공사로 인하여 해변 마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고, 때를 맞추어 하나님께서 디고스 사역을 열어 주셔서 아쉬운 마음으로 해변 마을의 어린이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해변이나 강변 지역을 고급 리조트 호텔이나 아파트, 또는 큰 저택들로 개발해서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좋은 경관과 맑은 공기를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 개발이 안된 나라에서는 해변이나 강변은 가장 가난한 주민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배수진을 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도 극소수의 관광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해변과 강변은 모두 가난한 주민들의 힘겨운 생활 터전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했던 해변 마을이 그러하고, 디고스를 향해 가는 동안 지나는 해변의 모든 마을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다바오 내에 있는 다바오 강 주변 마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바오 강은 도시 한가운데를 구불구불 지나 바다로 흘러 들어 가는데, 비가 오면 자주 범람하고, 강물이 탁하기 때문에 역시 가난한 마을들이 강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다바오 강이 지나고 있는데, 이곳에도 가난한 현지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이슬람권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항상 주변을 지나 다니면서 주민들의 삶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빛진 마음이 있어서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말에 들어서야 그곳 강변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약 2년여 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었으며, 후임 선교사가 없는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권 주민들이기 때문에 '선교'나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방과후 교실처럼 어린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해 주고, 그림을 그리고, 간식을 나누어 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선교 후임 담당자를 찾지 못하여 저희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 원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권과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여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가까워서 이동하는 시간이 짧고, 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어서, 현재 감당하는 ‘위클리프’ 및 ‘디고스 사역’과 중복이 되지 않게 시간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변 마을은 자동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큰 길에서 트라이시클을 타고 마을 입구까지 가서, 좁은 골목들을 걸어서 들어가야 마을이 나옵니다. 오래전 사역을 했던 해변 마을의 분위기와 거의 흡사해서, 마치 친근한 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다시 만나는 듯한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강변 어린이 사역’은 어린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주로 상대해야 하는 까닭에, 저 보다는 제 아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 아내는 지난 한달여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의 매일 이 지역을 방문해서 어린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흠어졌던 아이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의 부모들과 이웃들을 방문하여 안심을 시키며, 소위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책임자와 주민 대표들을 만나서 어린이 사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좋은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강변 마을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전임 선교사가 마을 주민으로부터 월세를 주고 빌렸던 장소를 다시 확보하고, 내부를 재 정비한 다음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책과 성경뿐만 아니라, 사역을 위한 각종 집기들을 비치 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또한 제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와 어린이 사역을 동역할 헌신된 현지 사역자를 찾기 위해 기도하며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의 엔돌핀’이 새롭게 솟아 나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강변 마을의 어린이는 물론 주민들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슬람권 마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 사역을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 147:10,11)**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